

지역 소식 통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2월부터 유료화 전환

고창군이 군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본격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고창읍 공영주차타워(총 주차대수 258면)를 준공, 무료개방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주차공간의 상당 부분을 장기주차 차량이 차지해, “주차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고창군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유료화로 전환했다. 공공시설물인 주차타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정차난 해소 등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며, 평일은 최초 2시간 이내 무료, 이후 1시간마다 500원을 징수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고창읍 공영주차타워가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료화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올해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신청 접수

부안군은 2025년도 전략작물 직불제사업을 통계작물은 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3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지원되는 선택형 직불금이며 농업 경영채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가 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원단가는 단일재배와 이모작 재배로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 브랜드육성팀 ☎ 063-580-4038이나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수경기 활성화 특단대책 필요”

심덕섭 고창군수, “경기침체 심각… 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 쏟아야”

심덕섭 고창군수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2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명절 특수를 누렸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많은 군민들이 지갑 꺼내길 주저하면서 지역상점과 식당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우려했다.

심 군수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정부 추경과 조기예산 등이 예상되는 4~5월전까지가 지역경기 침체의 최대 고비로 봤다.

심 군수는 “봄이 오기 전 2~3월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창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을 끌어내 보자”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경기부양 특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책에는 △각종 행사와 야유회·팸투어 2~3월 조기추진 △유관기관·사회단체 지역식당·카페 이용

장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겨울이 깊었으니 봄이 멀지 않았다”며 “모두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성장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새 단장 마치고 2월 4일 재개장

정읍 임산물 활용한 체험 기회 확대 위해 조성… 차향다원 향기온실 등 마련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더 다양한 체험과 편리한 운영 시간으로 2월 4일부터 재개장한다.

임산물체험단지(이하 ‘체험단지’)는 정읍 임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 힐링 체험 관광 활성화,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차향다원 △차향문화관 △향기온실 △목재문화체험장 등이 마련돼 있다.

차향다원에서는 대추차, 한방차, 복분자 요거트스무디 등 정읍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혈액 순환과 피로 개선에 효과적인 족욕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차향문화관과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차향문화관에서는 △호두초코쿠키 △버섯피자 △힘팍 △모듬인형 만들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고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원목 의자 △목사대 △혼상 만들기 등 목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향다원의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 30분~오후 6시에서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로 조정해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이화수 시장은 “체험단지가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천사하이로즈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체험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과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교과수업 본격 시작

정읍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으뜸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과수업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학업 지원에 나섰다.

정읍시민정학재단은 지난 1일 평생학습관에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교과수업 개강식을 개최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개강식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발시험을 통해 뽑힌 학생들과 학부모, 위탁학원 관계자, 시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했다.

개강식에서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교육 운영 방안과 학사 일정, 이용 수칙 등을 안내하며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여정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과수업은 주말 동안 평생학습관(충정로 98)에서 진행되며 전문 입시학원의 우수 강사진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심화수업을 맡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1:1 진로진학 컨설팅과 온라인 강의 수강

권도 제공되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양과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교과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정읍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부안군, 2025년 산불분야 종사자 발대식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3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분야 종사자(산불전문예방진화대 37명, 산불감시원 49명)와 관계 공무원 등 10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불분야 종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불전문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산불분야 종사자들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산불감시 주요 임무와 근무수칙 등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직무 및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영농 부산물 폐쇄 및 수거를 지원하는 등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해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임무를 맡고 있는 산불종사자들을 격려, “군의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56세 시민 C형간염 검사 비용 전액 지원

정읍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 전액 지원을 시작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 특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56세 시민(1969년생)을 대상으로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서 진찰료와 확진 검사비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확진 검사를 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C형간염은 감염 초기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56세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C형간염 국가검진 확진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형간염은 초기 증상이 없어 방치될 경우 만성 간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꽃정원-군립체육관 도로 확포장 착수

고창군이 노동리 일대 관광지(고창꽃정원단지, 자연미당, 노동저수지)방문객 증가에 따라 접근성 향상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도로를 확·포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 꽃정원단지와 자연미당, 노동저수지 등 고창군 도심 속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창군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꽃정원단지로 가는 노선(L=650m)을 2차선(B=12.5m)

에서 3차선(B=16.25m)으로 확포장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 후 내년(2026년) 연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 완화와 관광지 접근성 향상 등 교통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꽃정원단지, 자연미당 등 고창군 도심 속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